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12/29~2026/01/04]

2026.01.05

[로봇] CES 2026 프리뷰

- 다가오는 CES 2026. 주인공은 로봇. 한국도 다수 업체 출품
- 이번에는 LG전자. 홈로봇에 더해 로봇 액츄에이터 브랜드 공개
- 중국 유비텍, 휴머노이드 출고 6개월만에 1,000대 공급 돌파

[방산] 2025년 방산 해외 수주 리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천무 5.6조원 수출. 현지양산 본격화
- 2025년 한국의 해외 방산 수주는 152억 달러. 2년 연속 하락 후 급반등
- 일본의 방산 수출 야망. 용도 제한 철폐와 더불어 수출 전담 조직 신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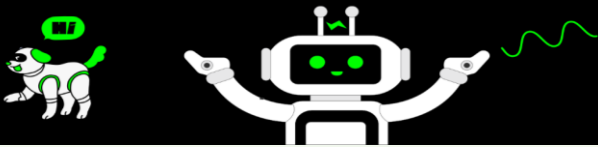
[항공] 2025년 국제선 리뷰

- 퇴역하려던 A380 다시 돌아와 미국 LA, 뉴욕 주력 노선에 투입된다
- 사망 사고내면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강력 조치 시행
- LCC도 통합 준비. 에어부산과 진에어 '비행준비실' 공유

[조선] 2025년 조선 리뷰

- 캐나다 잠수함 수주 대가로 현대차 캐나다 현지 공장 건설 요청
- 한화의 필리핀조선소 본격 투자. 굴리앗 크레인 도입과 추가 도크 인수 추진
- 26년 신년사에서 한화 '미국 조선 협력', HD현대 '기술 초격차' 강조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CES 2026 프리뷰

CES 2026 주간에 돌입. 올해 CES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로봇. 현대차, LG전자 등 로봇 비전 및 제품 공개 기대. 출품사부터 관련 밸류체인까지 로봇 섹터 관심 확대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9)

[CES 2026 프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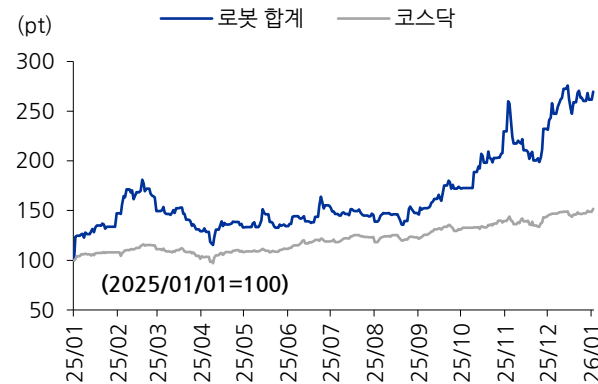
- CES 2026이 1/6~1/9 개최. 올해의 키워드는 '로봇'. 그동안 CES는 가전 → 모빌리티 → AI → 로봇 쇼케이스로 진화해왔음.
- CES 전/후 로봇 섹터 관심 급증 예상. 선반영으로 셀온 리스크 있으나, 현지 뉴스 플로우로 섹터 관심은 견조 전망. 출품사 → 부품/밸류체인으로 낙수효과 기대. 주요 관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① 현대차: 이번 CES '주인공'. 'AI 로봇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 발표 +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 오프라인 첫 공개.
- ② LG전자: 홈 로봇 '클로이드' 공개로 관심 확대. 모바일 로봇 베이스 휴머노이드 및 로봇용 액추에이터 LG 액추에이터 악시움' 공개 예정.
- ③ MAX 얼라이언스: K-휴머노이드 연합 공동부스(약 40개 기관). 상장사: 로보티즈·뉴로메카·에스비비테크. 스타트업 다수 출품.
- ④ 중국: 유니트리·애지봇·갯봇·엔진사·로보에라·매직랩 등 총출동. 전 시 비중 50%+ 전망, 로봇 핸드/촉각 센서 업체도 참여.

Key Chart: CES 2026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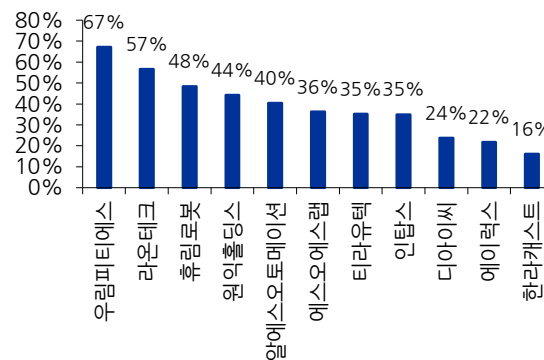
Unitree	Deep Robotics	HL그룹	투모로로보틱스
Agibot	Keenon	레인보우로보틱스	페르소나 AI
RobotEra	Noetix	로보티즈	Agility Robotics
Magic Lab	Dobot	뉴로메카	Dyna Robotics
Galbot	Ti5 Robot	원익로보틱스	Realbotix
LimX Dynamics	Booster Robotics	에스비비테크	Realhand
Engine AI	Paxini	에이던로보틱스	Richtech Robotics
베이지 휴머노이드 혁신센터	DexRobot	위로보틱스	Neura Robotics
PNDbotics	현대차	태슬로	Sharpa
Fourier	LG전자	페라데이아이나믹스	Avita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2/29~01/04)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큐렉소 인도 유통구조 재정비. 카피 이슈 이후 회복 국면
- 육군 5사단 다중 보행 로봇 시범 운용 중

[휴머노이드]

- LG전자 휠베이스 휴머노이드 홈로봇 '클로이드' 공개
- 뉴로메카, CES 2026서 휴머노이드 플랫폼 '에이르' 공개
- 로보로스, CES 2026서 휴머노이드 '이그리스-C' 선포

[부품/SW/기타]

- LG전자, 로봇용 액추에이터 LG 액추에이터 악시움 공개
- 테슬로, CES 2026서 고정밀 로봇 핸드 'DG-5F' 공개 예정
- 클로봇, 삼현과 물류·제조용 고중량 실외주행로봇 협력
- 中 로봇 전공자 58만, 美은 개발자만 17만인데 韓은 3만명
- 서진시스템, AI 로봇 파운드리 본격화
- 도구공간, IPO 주관사로 대신증권. 26년 상장 목표
- 트위니 '나르고60', 공공기관 3곳 진입
- 투모로로보틱스, 프리A 투자 유치

[Global]

- 中 유니테크, 1000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출고 6개월만
- 中 두봇 A주 상장 준비 돌입
- 日 화낙, 스테디 셀러 'R-2000' 시리즈 개편
- 일본 정부, 조선용 로봇 개발 지원
- 獨 세플러, CES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유성기어 박스 공개
- 伊 코마우, 경량 협동로봇 '마이코' 6종 발표
- 오카도, 크로거에 '독점 공급' 포기. 글로벌 기술 개방



Weekly Keyword

2025년 방산 해외 수주 리뷰

2025년 방산 해외 수주액은 150억불을 기록. 2022년 170억불 기록 이후 감소 흐름 지속되다가 큰 폭 반등. 중장기 성장을 가능케 볼 수 있는 지표. 2026년도 견조한 수주 흐름 지속될 것.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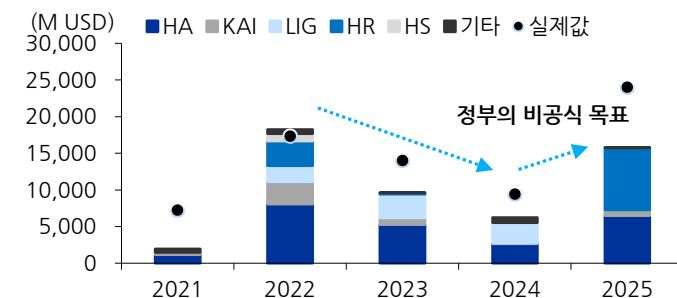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7)

[2025년 방산 해외 수주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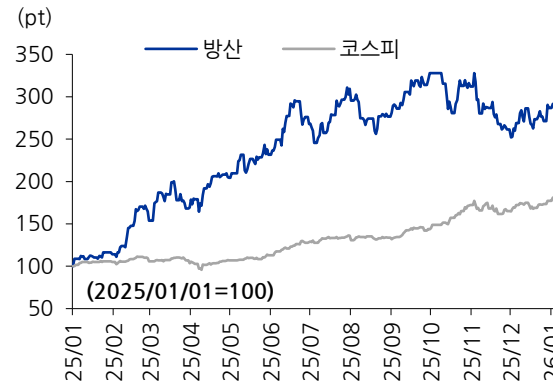
- 한국의 2025년 방산 해외 수주액은 150억불 이상 수주한 것으로 파악(공시 및 보도 집계). 정부도 2025년 수주액을 152억불로 밝힘. 폴란드가 100억불 이상. 2022년 173억불, 2023년 140억불, 2024년 94억불을 기록. 2025년 비공식 목표는 240억 달러로 설정한 바 있음.
- 현대로템 85억불(폴란드 K-2, 페루 지상무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5억불(인도/베트남/노르웨이 K-9, 폴란드 크랩 차체, 스웨덴 MCS, 중동 유도탄, 에스토니아/폴란드 천무 등), KAI 8억불(필리핀 FA-50 등)로 추정. 신규 수출과 더불어 재구매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
- 2025년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 불가리아 자주포, 콜롬비아 공격기, 슬로바키아 전차, 루마니아 방공 사업 정도.
- 2026년도 여전히 수많은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있음. 한국 방산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Key Chart: 한국 방산 해외 수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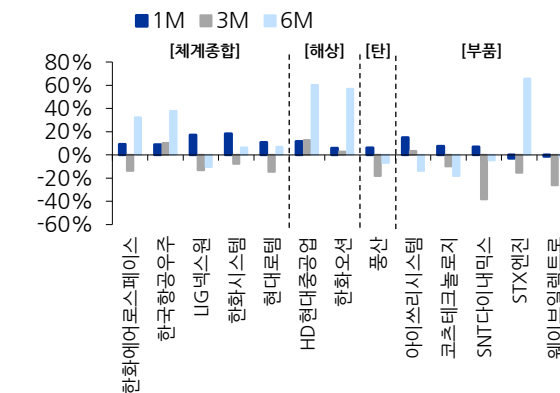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vise

방산 주요 뉴스(12/29~01/04)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폴란드 천무 5.6조원 규모 수출 달성
- 한화시스템, 한미 연합 지휘통제체계 성능 개량 사업 수주
- 한화시스템 '함정의 두뇌', 필리핀에 5번째 수출
- 한국 방산, 2025년 해외 수출 152억 달러 기록

[기업별 이슈]

- LIG넥스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 변경 추진

[기타]

- UAE 수출계약 앞두고 "1월 중 칼둔 행정청장 방한 예정"
- 수은, '9조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금융 지원
- 방사청, 3,100억원 규모의 제2기 혁신펀드 조성
- K2 흑표, 美 매체 선정 '2026년 세계 최강 전차' TOP 3 반열

[글로벌]

- 美,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 후 마두로 대통령 축출
- 미 공군, CCA에 노스롭 그루먼 자율 비행 드론 도입 검토
- 젤렌스키 "美, 15년간 안전보장 제안. 최대 50년 원해"
- 푸틴 관저 공격설' 영상 공개한 러. 美 "신빙성 없다" 결론
- 日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검토
- 日, EU SAFE에 대한 참여 의사를 공식 타진
- 영·독, 1,000억원 차세대 자주포 'RCH 155' 공동조달 계약
- 튀르키예, 스페인에 국산 훈련기 '후르젯' 30대 첫 수출
- 폴란드, FA-50GF 개량 대신 임무조정. 화력 지원 항공기로
- 형제'에서 '양숙'으로. 사우디·UAE, 중동 패권다툼 격화



Weekly Keyword

2025년 국제선 리뷰

2025년 국제선 수요는 나쁘지 않았지만 성장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일본과 미주 노선 수요가 정체되었기 때문. 중국 수요는 성장했지만 전체 성장을 이끌기에는 아직 역부족.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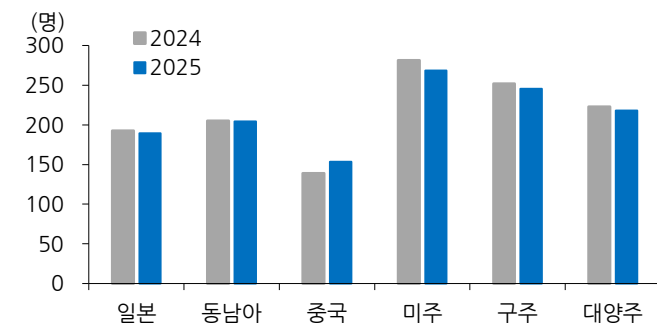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7)

[2025년 국제선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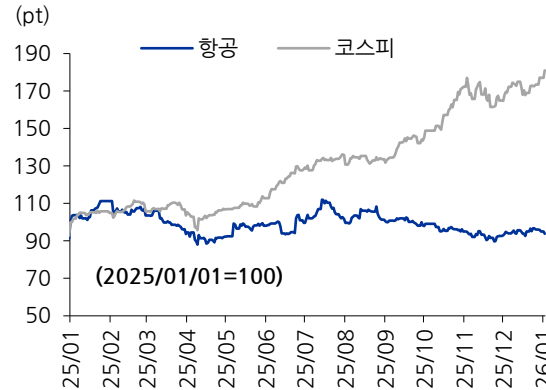
- 2025년 국제선 수요는 견조했지만 부침도 있었음. 핵심 노선인 일본과 미주 노선 수요가 정체되었음. 중국 노선 수요 증가는 긍정적이거나, 전체 여객 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 LCC 중심 기재 공급 확대되어 공급 과잉 상황인 점도 리스크.
- 일본: 최선호 노선. 다만, 여름철 무더위와 지진설로 3분기 성수기 실적 부진. 4분기 이후 회복 추세.
- 동남아: 구조적 수요 감소 지속. 태국 전쟁, 캄보디아 범죄 등도 영향.
- 중국: 여객 수 증가 흐름 지속. 상호 무비자 입국 허용 긍정적.
- 미주: 수요 견조하나, 미국 트럼프 정권의 반 이민 정책 등으로 수요 영향. 아시아권 항공사 미주 노선 강화로 환승 여객 이탈.
- 구주: 전년과 유사한 흐름.

Key Chart: 노선별 편당 여객수(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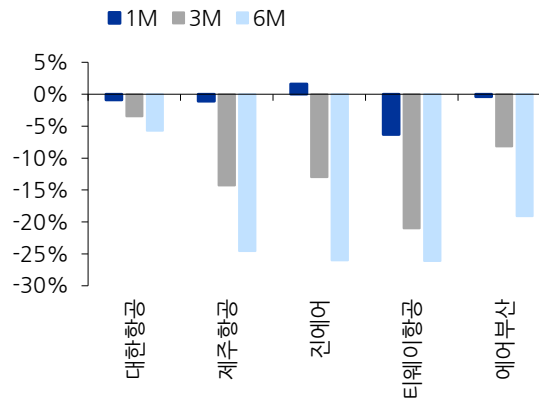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2/29~01/04)

[여객/화물]

- 에어로케이, '청주-세부' 정기 노선 취항
- 부산-두바이 하늘길 열린다. 에미레이트항공 취항 착수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뉴욕-LA에 A380 재투입. 달러 매출 확대 전략
- 김해공항과 에어부산 본사 '비행준비실'을 진에어와 공유
- 파라타항공 상업운항 3개월. 탑승률 80% 임박

[기타]

- 사망 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 이스타항공, IATA 국제안전인증 획득
- T2로 떠나는 아시아나 자리에 LCC 3개사 이동
- 신생항공사 '섬에어' 첫 항공기 김포 착륙
- 1월 인천공항 MRO 단지 화물기 개조사업 착수 예정
- 디에이피, 에어로케이홀딩스에 303억원 대여 결정
- 공정위, 카드사 아시아나 마일리지 건의사항 '패싱'

[글로벌]

- 마두로 생포에 美 국적 항공사 수백 편 무더기 취소
- 中, 에어버스 여객기 148대 신규 구매
- IATA, 내년부터 배터리 운송 규제 강화



Weekly Keyword

2025년 조선 리뷰

2025년 글로벌 신조 발주는 전년비 27% 감소, 중국이 35% 감소 한데 반해 한국은 7% 증가하면서 견조한 모습. 2026년은 LNGC 중심 발주 흐름 기대. 한국 조선의 호황은 계속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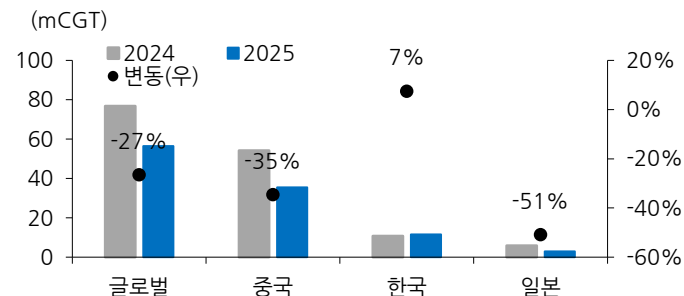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7)

[2025년 조선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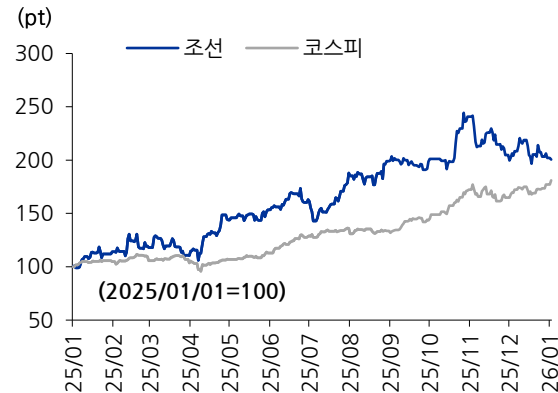
- 2025년 글로벌 신조 발주는 전년비 27% 감소했지만, 여전히 견조했음. 컨테이너선 중심 발주 활발했고, 하반기에는 탱커 발주가 강세를 기록. LNGC 발주는 급격히 둔화됨.
- 국가별로는 중국 M/S가 63%로 1위를 유지했고, 한국이 21%로 2위. 미국 USTR 조치 등 영향으로 중국의 신조 수주는 전년비 큰 폭 감소 한데 반해, 한국은 견조하게 유지된 점 긍정적.
- 중국 중심 건조 능력 확대 관찰. 한국은 한화오션이 플로팅 도크 투자 하며 증설. 그 외 한국 조선소는 직접 국내 야드를 확대하기보다는 해외 야드 투자 및 협력으로 간접적 증설 추진 중.
- USTR 조치 및 IMO 중기 조치 부과가 각각 1년씩 유예되면서 신조 시장은 혼란. 2026년은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기반, LNGC 발주 강세 흐름을 기대. 한국 조선소의 잔잔한 호황은 계속될 것.

Key Chart: 국가별 신조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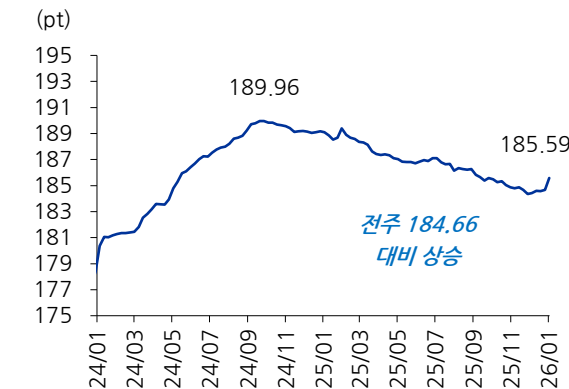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2/29~01/04)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Seapeak로부터 LNG선 2척 7,200억원 수주
- HD현대삼호, CCEC로부터 LNGC 3척 1.1조원 규모 수주

[특수선]

- 캐나다, 잠수함 수주 대가로 현대차 현지 공장 건설 요청

[기타]

- 한화 필리 조선소 美 핵잠수함 경력자 채용 착수
- 필리조선소 5번 도크에 660t 골리앗 크레인 추가
- 한화, 필리조선소 확장 '만지작'. 뉴저지주 두곳 '유력'
- 한화 김승연 "미래 선도기술 확보하고 조선협력 실행해야"
- HD현대중, 600%대 성과급. HD현대삼호 837%
- HD현대중공업 'AI조선소' 승부수. 생산성 30% 높인다
- 2026년 풍력보조 추진시스템 설치선박 100척 돌파

[글로벌]

- 미국 쇄빙선 6척 핀란드 및 자국 조선소에 분할 발주
- 벤처글로벌, Plaquemines LNG CAPA 35Mtpa 확대 요청
- 오스탈, 중형 상륙정 유럽서 건조 검토
- 북극에 나타난 中탐사선-잠수함들. 美 "새 안보위협"
- 형리조선소, 유럽 선주로부터 대형 원유운반선 수주
- 사이펄, 사우디 아람코 해양 EPCI 2건 수주